

월드컵 역사에 기록된 사건, 사건들!

글 | 김덕기(한국축구연구소 사무총장)

세계인 의 축제인 2006년 독일 월드컵의 날이 밝았다. 술 한 에피소드와 해프닝, 그리고 연속되는 사건 사고로 세계인의 눈과 귀는 한시도 월드컵 그라운드에서 떼어낼 수 없다. 그래서 월드컵이 더욱 흥미로운 것인가 보다.

74년 서독월드컵에서 한 편의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 자이르의 베디치 감독은 유고(현 세르비아 모테네그로) 출신 명감독이었다. 첫 경기에서 스코틀랜드에 2-0으로 패한 베디치 감독은 자신의 조국인 유고와 두 번째 대결을 앞두고 작전을 짜고 있었다. 이때 자이르 체육부 장관이 갑자기 들어왔다.

“베디치 감독, 유고와의 작전을 중단해야 할 것 같소. 모부투 대통령께서 전보를 보냈단 말이요.”

“축구와 대통령의 전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을 해임하라는 전보요. 대통령 각하께서는 당신이 유고 출신이기 때문에 유고와의 경기에서 유고 편을 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어처구니없게도 명장 베디치 감독은 이렇게 해임되고 말았다.

베디치 감독 후임에는 우습게도 축구의 '축' 자도 모르는 체육부 장관이 임명됐다. 체육부 장관이



이끄는 자이르는 유고에 9-0으로 대패했다. 경기가 끝난 후 모부투 대통령으로부터 또 한 통의 전보가 날아왔다. 대표 팀 감독과 함께 체육부 장관직도 해임한다는 내용이었다.

78년 6월 25일 네덜란드-아르헨티나의 결승전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경기장에서 열렸다. 아르헨티나의 광란적인 홈 관중들이 충까지 소며 술렁였지만 그라운드에는 네덜란드팀 밖에 보이지 않았다.

총소리에 겁을 먹어서 주눅이 들었지만 주심과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나오질 않았다. 네덜란드 선수들은 게임이 늦어지자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고 기다리다 지친 몇몇 선수들은 아예 탈진해서 쓰러질 지경이었다. 그러고도 한참 후에야 이탈리아인 세르지오 고벨라 주심이 리네 마이어(오스트리아), 바레토 라몬(우루과이) 선심과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태연히 나타났다. 기다리던 네덜란드 선수들이 지쳐서 제 팔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도록 아르헨티나가 지연작전을 쓴 것이다.

10분 늦게 경기가 진행되었는데 네덜란드는 좀처럼 몸이 풀리지 않았다. 더구나 볼만 잡으면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걷어차서 그라운드에 나뒹굴기 일쑤였다. 그래도 주심은 네덜란드 선수들이 태클당하는 것에 대해 파울을 주지 않았다. 그 반대로 네덜란드가 볼을 잡으면 주심이 호루라기를 불고 달려와 반칙을 선언했다. 전, 후반 50번이나 반칙을 주어 네덜란드의 공격은 맥이 끊어지다시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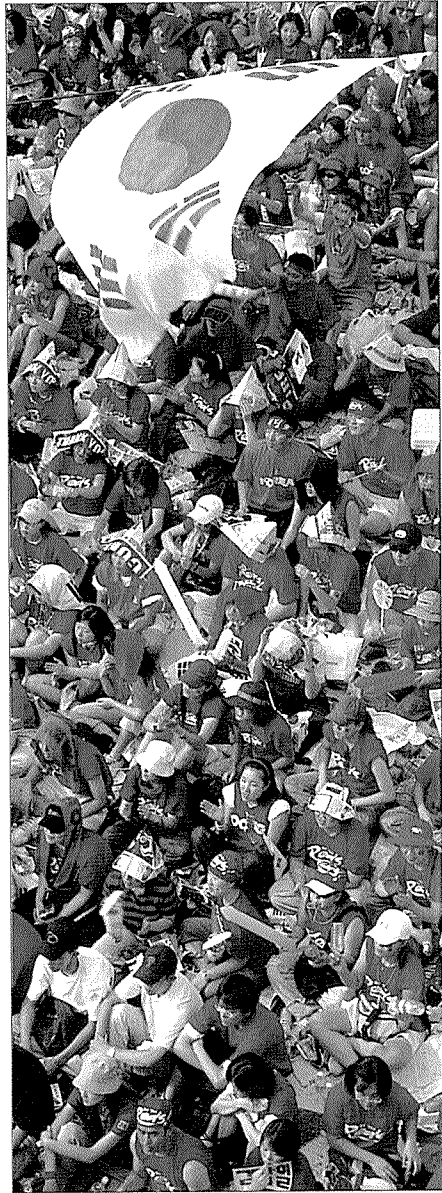
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아르헨티나에게는 반칙을 주지 않았다.

만약에 심판이 아르헨티나 측에 파울을 주었다면 광란의 관중들이 쓰는 총에 맞았을 것 같은 분위기였다. 주심은 총에 맞기 싫었던지 뇌물을 챙겼던지 아르헨티나를 도와주고 있었다.

전반 37분, 아르헨티나의 캄페스 선수가 선취 골을 넣었지만 경기종료 9분 전, 네덜란드 나닝거가 동점골을 넣어 연장전으로 이어졌다. 아르헨티나의 캄페스가 긴 머리를 휘날리며 네덜란드의 골문에 벼락 슈팅을 날린 끝에 우승컵은 3-1로 아르헨티나 품으로 돌아갔다. 캄페스의 동물적 감각의 골은 하늘을 향해 총을 쏘아대는 홈 팬들을 자제시켰으며 폭동도 막아냈다.

1954년 스위스월드컵 헝가리와 브라질의 8강전에서 월드컵 최악의 난투극이 벌어졌다. 유럽 챔피언인 헝가리와 남미 최강 브라질의 한판 대결은 사실상의 결승전이었다. 많은 축구팬이 명승부를 보기 위해 베른에 모였지만 최악의 난투극만을 보고 말았다.

이 최악의 난투극은 경기 시작 3분 만에 헝가리의 히데쿠티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시작됐다. 히데쿠티가 슈팅하는 순간 그를 방어하려던 브라질 선수가 그의 팬츠를 잡아당겼고 히데쿠티는 찢어진 유니폼 바지 사이로 시원함을 느껴야 했다.



헝가리와 브라질 선수들의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이는 금세 선수단의 패싸움으로 이어졌다. 여기
에 흥분한 관중이 운동장에 난입하고 경찰과 대회 진행 요원들이 이를 말리면서 경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후반에도 브라질의 산토스와 헝가리의 보시크가 주먹다짐을 벌여 퇴
장 당하는 등 월드컵 역사상 최악의 경기였던 이 경기를 일컬어 '베른의 난투극' 이라고 한다.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 미국-아르헨티나의 준결승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미국은 이 경기에서
6-1로 크게 졌는데 전반은 경기시작 10분 만에 센터하프 라파엘 트레이시의 다리가 부러져 10명이
싸우는 약조건에서도 1-0으로 선전했다.

경기가 이슬이슬하게 진행될 때 벤치의 목소리는 높고 관정에 민감하게 마련이다. 미국은 감독
보다 코치, 코치보다 트레이너가 더 아우성이었다. 트레이너는 5-0으로 뒤져 있음에도 가만히 있
지 못하고 고향을 치며 선수들을 독려하거나 심판에 항의했으며, 자기 편 선수들이 다치면 의로가
방을 들고 짹짹 달려 들어가기도 했다.

미국 문전에서 반칙이 선언되고 아르헨티나에 프리킥이 주어지자 트레이너는 기다렸다는 듯 의
료가방을 든 채 쓴살같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주심에 샅대질을 하며 항의했다. 경기 중에 경기장
입장은 주심이 허락해야만 가능하다.

벨기에인 주심 존 랑게누스는 트레이너의 항의에 대꾸도 하지 않고 오히려 경기장에서 나가 줄
것을 명령했다. 화가 머리끝까지 뻗친 트레이너는 의료가방을 경기장에 내동댕이쳤다. 진짜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의료가방이 박살나면서 내용물들이 사방에 흩어졌고 이때 마취용인 클로로 포
름 병이 깨져 씹씹대는 트레이너 콧속으로 약기운이 스며들었다. 트레이너는 순간 정신을 잃고 쓰
러졌고 들것에 실려 나왔다.

트레이너는 6-1로 경기가 끝나고 한참 뒤에야 겨우 정신을 차렸다. 이 바람에 미국 벤치는 조용
했지만 8만여 관중들은 볼거리 하나를 잃고 말았다. 卍

.....
■ 이 글을 쓴 김덕기 님은 ... 30년 넘게 축구 전문가로 활동해 왔으며 현
재 한국축구연구소 사무총장을 지내고 있습니
다. 얼마 전에는 동료 고두현, 송수남 씨와 함
께 「독일월드컵 10배 재미있게 보기를 펴냈
습니다.